

[박물관의 도시]

애국주의교양 현장... 길림시강제징용로동자기념관



해설을 듣는 관람자들

길림시강제징용로동자기념관은 길림성 중점문화보존단위이자 국방교양기지, 길림시 애국주의교양기지로 지정된 역사적 현장이다. 강제징용로동자기념관은 길림시 풍만구 강남향 땡가촌 동산에 위치해있는데 풍만수력발전소와는 약 2키로미터 떨어져있다. 기념관의 전신은 일제 강점기인 1937년부터 1941년까지 건설된 풍만 '만인갱' 유적이다. 당시 일본침략자들은 송화강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중국 함라지역에서 대량의 로동자를 강제징용했다. 이들중 다수는 산동과 하북에서 속임수에 의해 끌려왔

거나 강제로 동원된 사람들로 매일 십여시간씩 과중한 노동에 시달렸다. 따라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사망한 로동자들의 시신은 풍만 동산에 버려져 점차 '만인갱'이라는 비극적 유적을 형성했다.

길림시강제징용로동자기념관은 고난의 역사를 증언하는 전시장, 만인갱 유적, 기념비, 로동자 위령탑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념관내에는 강제징용 로동자들의 소장 문물 124점, 역사 사진 600여장, 유골 35구가 전시되어 있다. 기념관에서는 또 풍만수력발전소 건설 과정과 로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기록한 사진들도 볼 수 있다. 이 모든 자료는 일본제국주의의 잔혹한 침략 본성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기념관 입구에는 "력사를 망각하는 것은 곧 배반이다"라는 문구가 비석에 새겨져있는데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이곳은 단순한 역사 유적을 넘어 일본제국주의의 만행을 기억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교양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2023년에는 중화전국총공회로부터 '제2진 전국 종업원 애국주의교양기지'로 지정되며 그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길림시강제징용로동자기념관은 2020년 6월부터 대외에 개방하기 시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료로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에는 휴관한다.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은 역사의 아픔을 되새기며 평화와 정의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길림시강제징용로동자기념관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차영국기자



기념관에 전시된 사진들

길림시 조선족 민속광장무 전시 성황리에



5월 2일 오전 9시 30분, 길림시조선족중중예술관의 주최로 '즐거운 인생, 춤과 함께' 조선족 민속광장무 전시 행사가 길림시 송화강변 정년원광장에서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화창한 봄날씨 속에서 활기찬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길림시조선족중중예술관 및 길림시 여러 조선족 사회단체 소속 600여명 참가자들이 화려한 조선족 전통 의상을 입고 열정적인 공연을 펼쳤다.

각 팀들은 <봄의 노래>, <달타령> 등 전통 민속곡에 맞춰 다채로운 무용을 선보였으며 우아하면서도 리듬감 넘치는 동작으로 아름다운 삶에 대한 열망과 조선족 문화의 계승을

표현했다.

이번 행사는 대중들의 정신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했다. 이 또한 '건강한 중국' 정책의 실천적 사례이기도 하다.

길림시조선족중중예술관 리영일 부관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는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민족단결 한 가족 행사 및 길림시 민족문화주간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 차영국기자



'도가니왕'—길림룡창신에너지, 판매량 전국 1위

반석시에 위치한 길림룡창신에너지 지책임유한회사는 전국에서 가장 일찍 음극재료인 흑연 도가니(石墨化坩堝) 생산을 시작했다. 현재 회사는 전국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기업중 하나로 성장했다.

기업의 주요 제품인 '룡창표 흑연 도가니'는 20%대 전국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생산 판매 규모도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어 동업계에서 '도가니왕'으로 불린다.

'길림룡창'은 지역적 우세가 없는데도 왜 산업 리더가 되었나?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길림룡창신에너지는 끊임없이 과학기술혁신을 하고 있다. 올해 2월 11일에 출시한 '흑연 도가니'의 수정체가 갈라지는것을 방지하는 보호 구조' 특허가 정식으로 비준을 받았다.

"기술혁신을 통해 이제 도가니 전체가 아닌 일부 주체만 교체하면 돼 사용 원가를 낮추고 있다."는 길림룡창신에너지 기술연구자들의 간단한 소개이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매일 작업실에 몸을 담고 있는 기술연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다.

신기술, 신공예 개발을 통해 지금까지 길림룡창신에너지는 관련 기술, 제품 특허 29개를 보유하고 있다. 그중 발명 특허는 3개, 발명개발 특허는 5개이다.

부지면적이 15만평방미터이고 건

축면적이 6만평방미터인 길림룡창신에너지의 공장구역은 2018년에 착공되었고 6년간의 교체 투입을 거쳐 현재까지 근 6억원의 투자를 완수했다.

회사의 관계자는 "현재 압출성형, 소각, 기계가공, 단조, 음극재 흑연화 등 전체 생산라인을 구축했다."며 "지난해 건설되어 가동된 2만톤 리티움 이온배터리 음극재 정제 생산라인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선진적인 음극재 흑연화 생산라인이다."라고 말했다.

기업의 설립 초기에는 주로 흑연 도가니의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에 종사했으며 연간 30만세트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부단한 발전을 거쳐 현재 연간 판매 수입은 7억원에 달한다. 회사의 제품은 주로 상해, 심수, 란주 등 지역의 국내 음극재 선두 상장기업에 판매되며 일부 제품은 국외로 수출된다. 회사는 이 기업들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맺었다.

"2019년, 우리 기업과 장춘공업대학은 산학연(产学研) 전략 합작 관계를 건립하고 신제품, 신기술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했으며 적응인재양성기지를 세웠다. 2023년에는 길림대학과 기술의탁으로 산학연이 결합된 연구개발기지를 건립했다. 2023년말까지 회사는 도합 6,000만원에 가까운

연구개발 경비를 투입했다. 이는 모두 기업이 신기술, 신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데 유력한 기술 버팀목을 제공했다." 회사의 관련 책임자가 말했다.

현재 길림룡창신에너지는 ISO 품질, 환경, 직업건강안전 3체계 인증과 안전생산 '3동시' 검수를 통과하고 중국탄소협회 흑연 도가니 공공표준의 초안 작성을 주관하여 제정하였는데 이미 발표, 실시되고 있다.

올해 들어 회사는 제품 품질을 높이고 제품 품질을 한층 높였다. 시장을 더욱 넓히고 경제효익의 새로운 성장점을 창출하기 위해 탄소섬유 흑연 도가니 신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시험제작하고 있다.

전문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흑연 도가니와 음극 흑연화 제품은 신에너지 리티움이온배터리 음극재 산업사슬의 중요한 일환으로 미래의 시장 수요 잠재력이 크다.

이에 대해 길림룡창신에너지는 신심으로 가득차있다.

반석시의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현재 길림룡창신에너지는 국가 첨단기술기업과 길림성 '정정특신' 기업으로 과학기술혁신이라는 이 관련적인 변수를 틀어쥐고 반석 신소재산업의 발전에 새로운 동력 에너지를 부여하고 있다.

/ 송화강넷

'2025 송화호 개강어 요리 축제 및 제 6 회 산악연문화제' 개막



5월 2일, 길림시 송화호관광지에서 '2025 송화호 개강어 요리 축제 및 제 6 회 산악연(山地风箏) 문화제'가 서막을 열었다.

길림성과 길림시 대표 여행인플루언서(旅游达人), 길림성 사진작가협회 회원, 길림시연련협회 회원, 트레일 러닝(越野跑) 애호가 등 1,000여명이 참여해 행사의 활기를 더했다. 개막식에서는 송화호관광지의 여름 시즌 추천 코스 및 시민 혜택 정책을 발표했다. 개막식에 이어 송화호 트레일 러닝 대회 공식 출범 및 슬로프 킥 챌린지 레이스(跑山赛坡王挑战赛)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하늘을 수놓은 다채로운 연, 서무왕자대호텔 5성급 요리팀의 특별한 개강어 요리

시연, 트레일 러닝, 힐링 요가 등 20여가지 활동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했다. 길림성사진작가협회는 송화호관광지를 '길림성 사진작가 창작기지'로 지정했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5월말까지 지속되며 특별 혜택으로 키 1.2미터 미만 어린이, 7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군인(유효 증명서 소지자)은 무료 케이블카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여름 시즌 신규 프로젝트로 매주 주말 및 공휴일 일출 감상 케이블카 특별 운영, 청산 꽃축제, 텐트 캠핑 축제, 산악 스포츠 페스티벌 등 50여개 주제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을 연결하는 전용 배스를 운영하고 길림시 1일 관광상품을 출범하게 된다.

/ 길림시용매체중심

교하시, 봄물고기·산나물 장터 인기

봄바람이 훈훈하게 불어오며 만물이 소생하는 요즘은 송화호 개강어와 산나물을 맛보기 좋은 계절이다.

4월 30일, 교하시에서는 '2025 송화호 개강어 요리 축제 및 산나물 채취 행사'를 개최해 방문객들에게 신선함과 향긋함이 어우러진 봄의 향연을 선사했다.

개강어 요리 현장에서는 요리사들이 능숙하게 갓 잡은 강물고기를 요리했다. 관광객들은 보글보글 끓는 어탕 속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향기와 함께 푸짐하게 차려진 교하 경령의 특별한 물고기 요리를 맛보며 미식이 안겨주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산나물 장터에서는 민들레, 두릅, 오갈피 등 다양한 산나물이 자연의 풍요로움을 전하며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교하시의 춘주제 제1서기가 직접 산나물의 영양가와 조리법을 소개하며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많은 관광객들은 가족과 함께 즐기 위해 산나물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특히 조선족 전통으로 재탄생한 산나물 장아찌도 인기를 끌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미식 축제를 넘어 문화교류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으며 물고기 요리와 산나물을 매개로 다양한 지역의 관광객들을 유치해 교하시의 문화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교하시는 앞으로도 어업문화, 민속문화, 산나물문화를 융합한 창의적인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명소로 거듭날 계획이다.

/ 교하용매체중심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회원들 송화강변에서 즐거운 웃놀이



5월 6일, 길림시 송화강변공원에서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웃놀이대회가 개최되었다. 봄날의 화창한 날씨 속에서 협회 산하 19개 분회 100여명 회원들이 팀을 무어 8개 웃놀이판에서 한판 승부를 겨뤘다.

/ 황정애, 차영국기자